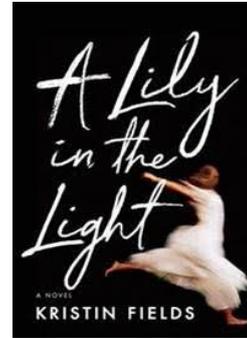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A LILY IN THE LIGHT
가제 : 네가 사라진 그날 밤
저자 : Kristin Fields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9년 4월 1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 “우리 마음을 날카로운 슬픔으로 사로잡는 저자의 글은 우리의 마음을 산산이 부서지게 만든 다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든다.”- 『Friends and Other Liars』의 저자 켈라 코블

열한 살 소녀 에즈메에게 발레란 자신이 가진 전부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겨우 네 살이었던 그녀의 동생 릴리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고 그때부터 에즈메는 발레가 주는 기쁨도 잊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먹먹한 기분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1997년 뉴욕 퀸즈, 네 남매 중 둘째였던 에즈메는 부모님과 오빠 닉과 매들린, 막내 릴리와 함께 하루도 조용한 날 없는 가족들 사이에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에즈메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재능 넘치는 발레리나이자 예민한 감수성과 섬세함을 가진 소녀였다. 에즈메는 발레 선생님이 선발한 최정예 다섯 멤버 중 한 명으로 뽑혔지만 그 사실에 대해 마냥 좋아하기 보다는 선생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다른 친구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남몰래 마음 아파하는 그런 속깊은 아이였다. 하지만 에즈메는 발레 교실을 나서면서 곧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겠다는 목표를 스스로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녀의 엄마 세리즈와 막내 동생 릴리가 있는 차를 향해 달려갔다.

에즈메는 가족 중 릴리를 가장 아꼈고 틈만 나면 동생과 시간을 보내느라 바빴다. 그런데 그날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해야 할 공부를 마치기 위해 매들린과 함께 나눠 쓰고 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심심했던 릴리는 곧 그 방으로 들어왔고 언니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다. 귀찮았던 매들린은 릴리에게 어서 밖으로 나가라고 고향을 치기 시작했고 놀란 릴리는 더 큰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들은 아빠는 아이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큰 오빠 닉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해달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릴리는 다시 매들린과 한참 실랑이를 벌이더니 기가 죽어 눈물을 그쳤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매들린은 여전히 화를 풀지 못하고 릴리가 이 세상에 없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하겠으며 환김에 소리를 질렀다. 에즈메는 부디 릴리가 그 끔직한 말을 듣지 못했기 바랐다. 에즈메는 마음이 쓰여, 테이블 밑으로 담요와 인형들을 가지고 기어들어가 웅크려 앉아있는 릴리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다시 릴리가 사방을 시끄럽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릴리를 그냥 그 곳에 두고 방으로 돌아왔다. 얼마 후, 밖에 나갔던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고 에즈메는 엄마와 함께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 오직 릴리의 모습만이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릴리를 불러도 대답이 없자 에즈메는 직접 릴리를 데리러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릴리는 아까 숨어 있던 거실 테이블 밑에도, 침실에도 보이지 않았다. 에즈메가 릴리를 찾지 못하자 온 가족이 일어나 막내가 숨어 있을만한 장소 전체를 뒤졌지만 집 어느 곳에도 릴리는 없었다. 에즈메는 집을 둘러보던 중 릴리의 코트와 신발이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고 릴리가 집 밖으로 나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에즈메의 아빠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릴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 갔고 경찰들조차 릴리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가족들은 결국 릴리의 실종이 자기들 탓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에즈메는 그날 밤 릴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고 자기 공부에만 몰두했던 것을 후회했고 매들린은 어린 동생에게 해선 안될 말을 내뱉었던 자신을 비난 중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가족 모두가 용의자가 되었다. 경찰들은 릴리가 사라지던 날 밤 큰 아들인 닉이 어디로 나갔다가 들어왔는지 조그마한 아이가 집에서 빠져나가는 동안 부모들은 무엇을 했는지 캐물었다. 하지만 가족에겐 아무런 죄가 없었고 그런 범죄를 저지를만한 이유도 없었다.

그 후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고 그 세월동안 비극을 마주한 가족들이 으레 그렇듯 에즈메의 가족 역시 서서히 분열 되고 있었다. 부부 사이는 서로의 슬픔 속에 갇혀 소원해진 지 오래였고 남아 있는 남매들 역시 부모의 절망과 분노 속에서 결코 온전히 자라지 못했다. 에즈메는 심지어 동생의 자리를 대신해줄 상상 속의 릴리까지 만들어 냈고 답답한 일이 있거나 동생이 그리울 때면 상상 속의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에즈메에게만큼은 아직 발레라는 희망이 있었다. 에즈메의 발레 선생님은 하루라도 빨리 그녀가 그 집에서 벗어나 자신과 함께 살면서 세계를 무대로 발레리나로서 성공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에즈메는 선생님의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에즈메는 이 절망 속에서 자기 자신부터 먼저 구해야 할지 아니면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 하며 크나큰 슬픔을 나누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특히 가족을 떠나는 건 더 이상 실종 된 릴리를 찾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처럼 들렸기 때문에 선뜻 선생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비극을 공유하게 된 한 가족에게 일어난 가슴 아픈 변화들과 상실, 트라우마에 관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크리스틴 필드 (Kristin Fields)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하며 유진 슈나이더 소설 상(Eugene Schneider Fiction Award)을 수상한 바 있으며고등학교 영어 강사로 일한 바 있다. 현재는 뉴욕 시 공립학교에 정원을 설치하기 위한 운동을 이끌고 있다.

제목 : FOR WHEN I'M GONE

가제 : 내가 떠난 후에

저자 : Rebecca Ley

출판사: Orion

발행일: 2020년 3월 5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 죽어가면서까지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과 혼란을 걱정하는 아내가 남긴 안내서, 그 안내서를 읽어가며 슬픔을 견디는 법과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한 남편과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

겨우 서른 여덟, 아직은 한창 젊은 나이인 실비아는 말기 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남은 가족을 위해 그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안내서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실비아는 아름답고 지적인 여자였고 그녀의 남편 폴은 두 딸아이 메간과 주드를 너무나 사랑하는 다정한 남편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단란한 가정에 비극적인 소식이 찾아왔다. 실비아는 자신을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는 의사의 말을 침착하게 받아들이려고 애썼다. 의사의 말이 매정하게 들렸지만 그 역시 자신의 직업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비아는 다만 아직 이 사실을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고 언제나 남편과 같은 목적지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믿었던 그 희망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는 사실에 더욱 슬퍼졌다. 실비아는 자기 자신에게 곧 닥칠 죽음보다 앞으로 엄마 없이, 아내 없이 살아갈 남은 가족들에 대한 마음 때문에 더욱 괴로웠다. 그래서 실비아는 아이들이 소풍에 갈 때 신으면 안성맞춤인, 보온성이 좋은 양말은 어떤 것인지, 두 딸들이 각자 어떤 치즈를 제일 좋아하는지, 향산화 작용을 일으키는 건강한 차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와 같은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시시콜콜한 사항들을 적은 안내서를 쓰기로 결심했다.

동시에 실비아는 한편으로 남겨질 가족 외에도 자신에 인생에 찾아온 이 불행과 불합리성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다. 실비아는 자신의 달라진 외모를 돌아보았다. 가족들의 기억 속에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약한 모습으로 남게 될까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아이를 낳기 전, 암 진단을 받기 전, 치료를 받기 전의 얼굴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실비아는 자신의 육체를 갈구하고 사랑했던 남편의 손길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에 화가 났고 남편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든 자신과 가혹한 운명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 또한 아이들은 곧 자신을 잊어버릴 것이고 남편 곁에는 자신보다 더 완벽한 아내, 엄마 노릇을 하는 다른 여자가 생기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남은 시간 동안 가족들을 위해 자신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만큼은 잊지 않았다. 폴은 실비아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늘 그랬듯이 처방전을 꼼꼼히 정리했고 실비아에게 약 복용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었다.

결혼 전 실비아는 폴 외에도 여러 남자들을 사귀었다. 하지만 남편 폴은 그 중에서도 그녀와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고 그녀의 친구들은 물론이고 그녀의 엄마 또한 폴이 턱없이 둔한 데다 따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반대로 런던 출신의 폴의 친구들은 그녀를 새롭고 매력적이지만 연애 상대로는 결코 편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폴의 엄마 역시 그의 전 여자친구를 더 좋아했고 실비아의 존재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실비아와 폴은 오직 서로에게서만 본 것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을 따라 서로를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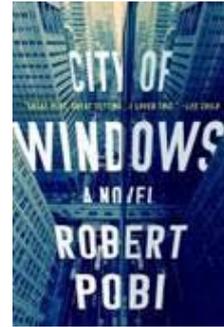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집에 있는 아이들을 다 챙기고 허겁지겁 병실로 달려온 폴이 곁에 있는지도 모르고 잠에 빠져 있던 실비아는 간호사가 실비아가 좋아하던 오디오북을 틀어줘도, 폴이 애타게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폴은 누구보다도 요란스럽고 존재감이 확실 했던 그녀가 이렇게 조용하고 희미하게 사라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기억마저 흐릿한 여러 날들이 지나고 폴은 사람들로 가득한 집안을 빠져 나와 실비아가 남긴 책을 펼쳐보았다. 첫 장을 열자마자 실비아의 목소리가 생생히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폴은 실비아의 과거와 최근의 모습을 떠올렸다. 폴이 그리워하는 것은 그녀의 건강하고 활력 있던 시절의 몸이 아니라 실비아에게서 빛나고 있던 긍정성이었다. 이제 폴의 손에는 그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실비아가 남긴 새로운 유산이 있었다. 결혼 후 살림을 도맡은 건 오직 실비아 한 사람 뿐이었고 폴은 집안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었다. 그런 그를 위해 실비아가 이 선물을 남긴 것이다.

실비아가 남긴 안내서에는 먼저 매건과 주드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작성 되어 있었다. 아무리 같은 자매라도 매건과 주드는 수면 시간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는 방법, 식습관, 학습 방법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 다른 자매였고 따라서 그에 맞는 개별적인 방침이 필요했다. 뿐만 아니라 실비아는 아이들에게 자기의 물건들을 둘 중 누구에게 어떤 것을 때에 맞게 물려줘야 할지, 엄마 대신 성인 여성의 조언이 필요할 경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적절한 핸드폰 사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어느 정도로만 의존하는 게 좋을 지 그 적절한 선까지 상세하게 그 책에 적어 두었다. 폴은 실비아가 남긴 책을 통해 그녀 없이도 인생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아내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비범하고 놀라운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자신의 인생을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떠난 실비아의 목소리와 점점 성장해가는 폴의 모습을 통해 모성과 결혼 생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가슴 아프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저자 소개>

레베카 레이 (Rebecca Ley)는 데뷔작 Sweet Fruit, Sour Land 는 2018 년 더 가디언 닷 더 부커상(The Guardian Not the Booker)을 수상한 바 있다.

제목 : CITY OF WINDOWS
가제 : 창문들의 도시
저자 : Robert Pobi
출판사: Mulholland Books
발행일: 2019년 8월 6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환상적인 줄거리를 가진 스릴러, 동시에 너무나 흥미롭고도 독창적인 주인공이 돋보이는 소설이기도 하다." - 『The Old Religion』의 저자, 마틴 웨이츠**

천체 물리학자 루카스 페이지 박사에게 남들에게 없는 비범한 능력이 있었다. 그는 범죄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 번에 읽어내어 그 공간에 벌어진 일들의 궤적과 궤도를 파악할 수 있는 고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 때 그는 '더그 하트케'라는 파트너와 함께 FBI 요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사건 현장에 나갔다가 눈, 팔, 다리 한쪽씩을 잃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그의 요원 경력도 막을 내렸다. 그는 이제 의족과 의수를 착용한 몸의 반은 금속의 힘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남은 시간은 모두 그의 아내 에린과 네 자녀를 위해 쏟아 붓고 있었다. 또한 그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다섯째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서야 조금씩 남들처럼 평범한 생활의 궤도에 접어든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NYC 특수 요원 브렛 키호가 그를 찾아왔다.

거센 눈 폭풍이 몰아치던 어느 날, 그의 옛 동료 하트케는 교통 체증으로 혼잡한 도로 위에서 자신의 차 좌석에 앉아있다가 의문의 저격수가 쏜 총에 맞아 숨을 거두었다. 사건이 발생한 현장과 타깃이 되었던 사망자의 위치, 주변 건물들과의 거리, 높이를 따져봤을 때 이 대도시 한복판에서 저격 사건이 일어나기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FBI의 유능한 요원들조차 이 어이없는 충격 사건에 대한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고 그나마 남아있을 법한 흔적마저 눈 폭풍과 함께 이미 사라진 뒤였다. 브렛 요원은 총알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그 의문의 저격수의 동지가 과연 어디였는지 알아내기 위해 고민하던 중 전직 요원이었던 페이지 박사만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찾아갔다. 하지만 페이지 박사는 선뜻 그의 제안을 수락하려 하지 않았고 브렛은 그를 설득하기 위해 죽은 동료에 대해 그가 가지고 있던 죄책감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결국 박사는 그의 설득 끝에 그 일을 맡기로 했다.

몸의 절반을 잃고 범죄 현장을 떠난 지 거의 10년이 지났지만 페이지 박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수수께끼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재능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에게 뉴욕이라는 도시는 지평선을 향해 뻗어 있는 숫자들로 구성된 모자이크이자 하나의 거대한 매트릭스였다. 박사는 현장을 둘러보고 법의학 수사 전문가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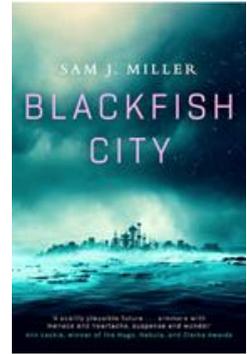
장비를 꺼내 공공거리며 현장으로 도착하기도 전에 사건 당시 저격수가 있었을 법한 가장 유력한 지점을 곧바로 찾아냈다. 그곳은 바로 사건 현장에서 꽤 멀리 떨어진 건물 옥상이었다. 이론적으로는 그곳에서 저격수가 타깃을 향해 발포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지만 그 정도 거리와 높이에 발사된 총알이 사람을 맞추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페이지 박사는 자신이 쫓고 있는 이 뛰어난 저격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사냥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범인이 대체 어떤 목적으로 살인 사건을 벌였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루카스는 시간이 지날 수록 불안해하는 아내에게 이 일은 끝내고 나면 더 이상 그 사건과 엮일 일이 없을 것이라며 진정시켰고 크리스마스 기간만큼은 가족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법부 소속 직원 한 명이 같은 방식으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박사는 범인의 총구가 이제 자신의 가족들까지 위협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이 일은 박사의 개인적인 일이 된 것이다.

그 후에도 유사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고 희생자들이 가진 유일한 공통점은 모두 법 집행기관 소속이었다는 것, 하나뿐이었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범인의 사냥 솜씨는 더 발전하고 있었고 FBI 요원들과 박사는 죽은 동료 하트케는 그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저격수의 희생자 중 첫 번째 타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페이지 박사와 그의 임시 동료들은 살인의 동기와 사망한 피해자들 사이의 연관성을 깊이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건이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자 박사를 둘러싼 FBI 사람들은 점점 그의 능력과 소양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고 엉뚱한 사람을 유력 용의자라고 지목했다. 수천 명의 FBI 요원들은 느닷없이 무슬림 출신 테러리스트를 찾기 위해 온 나라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하고 박사는 이런 상황에서 운 좋게도 뛰어난 요원 위태커 요원과 완벽한 짝을 이루어 단독으로 다른 용의자를 찾기로 했다. 박사는 점점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위협이 엄습해 오는 것을 직감했지만 총보다는 자신의 두뇌와 논리력으로 이 사건에 맞서기를 바랐다. 비극적인 '그 사건' 이후 지금의 아내와 재혼해 상처 입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폭력적인 세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다. 박사는 수사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수 십 년 동안이나 고의적으로 은폐해온 비밀과 이 사건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박사는 수십 번에 걸쳐 방해 공작을 받지만 위태커 요원과 자신의 뛰어난 제자들 3명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막대한 양의 정부 기밀들을 입수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끔찍한 사건을 겪고 하루 아침에 장애인이 되었지만 자신의 뛰어난 지력과 선한 마음으로 끝까지 더 나은 세계를 만들고 폭력적인 미국 사회와 맞서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주인공 캐릭터가 돋보이는 독창적인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로버트 포비 (Robert Pobi)는 15 개국 이상에서 출판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저자이다. 전작으로는 『Bloodman』, 『American Woman』, 『Mannheim Rex』 등이 있다.

제목 : BLACKFISH CITY
가제 : 블랙피쉬 시티
저자 : Sam J. Miller
출판사: Orbit UK
발행일: 2018년 4월 19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SF스릴러



★ 「퍼블리셔스 위클리」, 「커커스 리뷰」 선정 2018년 최고의 책

기후 전쟁이 끝난 후, 지구의 절반은 물에 잠겨버렸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북극권에 일명 '떠다니는 도시'를 건설했다. 기계 및 사회공학을 바탕으로 세워진 이 놀라운 도시는 이제 부패와 인구 문제로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낯선 여자가 이 도시에 찾아왔다.

카아나크는 대서양 북부에 떠있는 거대한 인공 도시이다. 이 도시는 최첨단 기계와 과학 기술을 통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으며 관료제, 정부 같은 구시대적 산물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공식 언어라는 것도 없었다. 다만 인구의 37퍼센트가 스웨덴어를 구사한다는 특이한 점이 있었다. 공식적인 정부 체제 대신 고도로 발달한 인공지능과 미스터리에 싸인 주주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도시는 중앙 허브를 중심에서 뻗어 나온 여러 갈래의 선형으로 이루어져있었고 최근에는 점점 인구가 늘어나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었다. 그 중 어떤 구역은 다른 선형 지역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또한 이 도시 역시 물에 잠긴 이전의 세상에서 그랬듯이 부자들이 몰려 사는 지역은 제법 한산하고 고요한 편이었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도시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탐욕스러운 기업들이 있었고 무자비한 범죄가 존재했다. 그 중 가장 큰 갱스터 집단은 다름 아닌 카아나크에서 가장 잘나가는 사업가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는 원인 모를 바이러스가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 바이러스는 보균자의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의 체내로 들어가 감염자의 기억이나 지식을 말끔히 지워버렸다. 더 끔찍한 것은 이 병의 증상이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감염된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을 잃는 대신 자신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사람의 괴로운 기억까지 다 떠안고 그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게다가 완벽하게 작동되고 있던 인공지능마저 시스템에 발생한 오류로 질병의 원인조차 찾아내지 못하자 카아나크의 소수 종교 집단 사람들은 이 질병이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음탕한 사람들의 문란한 성생활 때문에 생겨난 성병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사람들은 아이들이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뻘뻘하게 모여 살고 있는 8구역에서 혈액 접촉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염 사태가 발생하자 사람들은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새삼 깨닫고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 때, 한 낯선 여자가 살인 고래 한 마리와 우리에게 갇힌 공을 데리고 이 도시에 찾아왔고 도시 전체에 이 여인과 관련된 소문이 삼시간에 퍼져나갔다. 기자들은 서둘러 그녀를 찾아가 그녀가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 동물과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혹시 물에 잠기기 이전 시대에 개발된 나노 기술을 이용해 동물과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사람인지, 어떻게 대학살에서 살아남게 되었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동물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를 냈다. 그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이 도시 대주주의 손자이자 젊은 게이 청년인 필은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차에 동물과 소통이 가능한 그 마법 같은 존재를 동경했고 정신이 이상해진 싸움꾼 카엠프와 우편 배달부인 소크 역시 하루라도 빨리 그녀를 만나보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시가 언제나 질서에 맞게 평화롭게 돌아가길 바라는 안키트는 도시의 소수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를 사탄의 신부, 즉 마녀 같은 존재라고 비난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를 이 도시에서 쫓아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길다란 파이프와 같은 무기를 들고 그녀가 머물고 있는 은신처로 찾아갔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신의 섭리를 거스르고 태어난 혐오스러운 존재라고 몰아세웠다. 사람들을 따라 몰려온 기자들은 위기에 처한 그녀를 돕기는커녕 그 모든 과정을 사진과 영상에 담느라 바빴고 그녀는 이 상황에서도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다. 사람들이 과감하게 그녀를 잡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자 사슬에 묶인 공이 움직이는 소리와 함께 총성이 들려왔고 그녀는 웃음 소리도 어느새 멈춰버렸다. 다리에 총을 맞은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주저 앉았고 사람들을 그런 그녀를 점점 둘러싸며 웃어댔다. 그러자 공은 몸에 얽혀 있던 사슬을 끊고 밖으로 나왔고 겁에 질린 사람들은 그제서야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이 모임을 주도한 여자와 몇몇 폭도들은 미처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했고 끔찍한 최후를 맞이해야했다. 겁에 질린 기자들 역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비극은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지지 못했고 피가 범벅된 바닥에서 사람의 머리를 핏고 있는 공의 모습만이 그 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그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신비로운 존재라고 믿으며 그녀가 있는 곳을 방문했다. 그녀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별 특별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하릴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고 그녀가 신화 속 존재와 같은 신기한 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도 마치 중독된 것처럼 반복해서 그녀를 만나고 싶어했다. 사람들은 점점 그녀에게서 희망을 찾게 되지만 얼마 후 그녀는 동물과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녀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다. 그녀는 어디로 간 것일까? 사람들의 믿음처럼 그녀가 가진 그 신비로운 능력이 의문의 바이러스를 이 곳에서 몰아내게 될까? 네 젊은이의 독백으로 이루어진, SF 와 판타지가 결합된 흥미로운 소설이다.

<저자 소개>

샘 제이 밀러 (Sam J. Miller)는 단편 소설로 셸리 잭슨 상 (Shirley Jackson Award)을 수상했으며 여러 문학상 후보로 지명된 바 있다. 전작으로는 YA 소설 『The Star of Starving』이 있다.

NON-FICTION

제목 : THE FREELANCE BIBLE

가제 : 프리랜서들 바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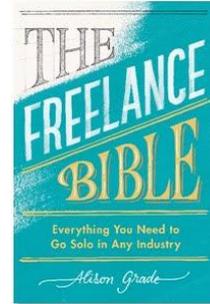
저자 : Alison Grade

출판사: Portfolio Penguin

발행일: 272 페이지

분량 : 2020년 3월 5일

장르 : 자기계발



***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다려온 책, 프리랜서 일을 통해 독립성, 영광, 균형을 획득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 『The Joy of Work』의 저자 브루스 데이즐리**

모든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서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얻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 따라. 여건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의 방향을 결정하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성공을 이루고 싶어하는 프리랜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인력 시장 구조의 변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프리랜서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책의 저자 기업가 앨리슨 그레이드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이 25년 이상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저자는 프리랜서란 여러 가지 면에서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프리랜서들은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달리 자기가 가진 모든 개인적인 시간까지 자기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일의 형태는 아니다. 하지만 다양한 직업이 등장하고 전문화된 일들이 늘어남에 따라 프리랜서직은 정규직을 갖기 전 잠시 거쳐가는 임시직 정도가 아닌 추가적인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중요한 노동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나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것을 앞두고 있는 사람 혹은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게조차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것은 여전히 겁나는 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저자는 그런 두려움과 모험성을 딛고 잘 준비만한다면 진정으로 자유롭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프리랜서라고 말한다.

저자는 프리랜서로 전향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일반적인 직장인의 삶과 프리랜서의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프리랜서 직업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그 방향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직장인들과 달리 프리랜서는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 노동량, 업무의 내용, 계약 성사, 휴일까지 스스로 다 결정해야 하고 연금 및 보험료도 월급에서 차감 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관리하고 지불해야 한다. 게다가 월급날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회사의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그 중에서도 장점이 있다면, 아무런 공제 없이 급여의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후 세금 청구서가 도착하기 전 세금 낼 돈을 미리 정산해 두어야 한다는 불편한 점도 있다. 그 중 연금 문제는 프리랜서들이 가장 유념해야 할 분야이다. 프리랜서는 직업 특성상 현금 흐름이 매우 불규칙 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연금 계획을 세우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 자칫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의 장정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오직 균형만 잘 맞춘다면 성공적인 프리랜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프리랜서는 스스로 비용 처리, 미지급 송장 관리하기, 업무 제안서 작성, 이메일 회신, 고객 미팅까지 다 해야 한다. 하지만 저자는 스스로 업무의 양을 잘 조절하고 일반 직장인들처럼 주 5일제 하루 8시간 일하기 원칙 지키라고 조언한다. 물론 고객의 일정과 스케줄을 조율해야 하긴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업무 적정 시간과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파악하고 그에 맞게 일을 해야 효율적으로 프리랜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프리랜서들이 현명하게 재정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점검하고 고객층을 넓히고 거래를 협상하는 법,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소개한다. 철저한 준비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프리랜서 역시 지속 가능한 직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목차>

프리랜서 - 선택일까 필수일까?

제 1 장: 프리랜서란 무엇인가?

제 2 장: 프리랜서로서의 정체성 찾기

제 3 장: 연구, 연구 또 연구

제 4 장: 모든 것은 다 돈이다

제 5 장: 스스로를 평가하기

제 6 장: 당신만의 비전을 표현하기

제 7 장: 계획을 현실로 만들기

제 8 장: 네트워크 육성 및 활용

(이하 생략, 총 13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앨리슨 그레이드 (Alison Grade)는 창업가이자 중소기업을 상대로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단체인 'Mission Accomplished'의 창립한 전문 컨설턴트, 기업 트레이너이다.

제목 : CAN WE TALK?

가제 :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저자 : Sarah Vohra

출판사: Sheldon Press

발행일: 2019년 9월 5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교육



*** 심리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 그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시작하기 전 탄탄한 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어린 시절부터 치열한 경쟁의 세계에 뛰어 들어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이로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부모 혹은 양육자가 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아동 및 청소년 전문 상담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저자 사라 보라 박사는 아이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그 누구보다 부모들이 먼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썼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수많은 갈등과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또래들 간 서열 싸움 속에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느닷없이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섭식 장애 증상을 보이거나 외모 문제로 고민하는 아이들도 있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있다. 게다가 최근 등장한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오늘날의 아이들은 더 크고 복잡한 문제에 노출 되어있고 이로 인한 강박 장애, 집중력 상실, 친구들과 사이에서 느끼는 압박감으로 자해를 시도하거나 불안 장애, 수면 장애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아무리 대화를 하려고 시도해도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침실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양육자는 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시도하게 될까?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른들은 일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낯선 어른에게 자기 마음을 쉽게 보여주지 않고 입을 꼭 다물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부모로써, 양육자로써 그 때 느끼는 고통과 답답함은 아마 이루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보라 박사는 바로 이처럼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지만 전문가의 조언으로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여건상 전문가를 만날 기회를 얻기 어려운 부모들을 위해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점을 감안해,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신 건강 문제들을 항목별로 이 책에 실었고 그 질환 및 장애의 특성과 증상, 그에 따라 부모가 취해야 하는 초기 조치에 대해서 소개한다. 즉, 이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임상 실습이나 마찬가지로 인 것이다. 또한 단계별로 부모가 자녀와의 간단한 대화를 통해 아이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고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줄 대화 방법 및 중요 예상 지문들을 제공한다. 또한

'단계별 신호등'이라는 항목을 통해 의사 결정을 단순화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부모도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저자는 단계별 적용 상황에서 아이들이 스스로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지도 모르는 위험이 감지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응급 서비스를 받을 것을 명시한다.

단순히 생물학적 관계에 있는 부모 뿐만 아니라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 혹은 청소년의 적법한 양육자 혹은 보호자, 성인들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정신 건강 문제의 초기 증상을 신속히 발견하고 전문적인 지원에 접근하기 전 준비 과정을 돕기 위한 책이다.

<목차>

제 1 장: '한 번 이야기해보자': 대화 시작하기

제 2 장: '아이가 우울해하는 것 같아 걱정이 돼요.'

제 3 장: '아이가 자해를 시도하는데 혹시 이게 자살 시도로 이어질까 봐 걱정이 돼요.'

제 4 장: '아이가 걱정이 너무 많은 게 걱정이 돼요.'

제 5 장: '아이가 강박장애가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돼요.'

제 6 장: '아이가 양극성 장애가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돼요.'

제 7 장: '아이가 헛것을 보는 것 같아 걱정이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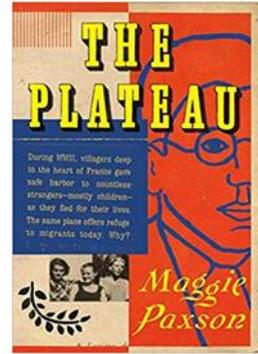
제 8 장: '아이가 섭식 장애를 겪게 될까 봐 걱정이 돼요.'

제 9 장: '아이가 ADHD를 앓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돼요.'

<저자 소개>

사라 보라 (Sarah Vohra) 박사는 아동 및 청소년 전문 상담가이자 정신과 의사이며 칼럼니스트이다. 사라 보라 박사의 연구는 주로 양육자나 보호자들이 정서적·정신적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의 초기 징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목 : THE PLATEAU
가제 : 피난처가 된 한 마을의 기억
저자 : Maggie Paxson
출판사: Penguin Random House USA
발행일: 2019년 8월 13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역사, 에세이



*** "개인적인 에세이와 역사적 기록, 철학적 명상이 사랑스럽게 조합된 책." -워싱턴 포스트**

제 2차 세계 대전 동안, 프랑스의 작은 마을 주민들은 나치 군인들을 피해 도망 다니던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몸을 숨길 안락한 피난처를 제공해주었다. 오늘날 역시 이 마을에는 전세계에서 온 난민들을 위해 마련된 피난처가 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왜, 그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유대인 아이들을 숨겨주었고 지금까지도 난민들을 보살펴 주고 있는 것일까? 이는 그저 시간을 초월해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 우연에 불과한 것일까? 인류 학자인 이 책의 저자 매기 팍슨은 이 책에서,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왜 이곳 사람들이 이처럼 이타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 살펴본다.

저자의 홀로코스트 연구에 있어 핵심 의제는 바로 '아무런 힘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대체 왜 무자비한 폭력성에 맞서 싸우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일까?'였다. 그녀의 주 연구 무대는 프랑스의 한 독특한 고원 지대, '비바레 리뇽 (Vivarais-Lignon)'이라는 지역이다. 종교 전쟁 초기에는 개신교 신자들이 이곳에서 몸을 숨겼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 수백 명의 유대인 아이들을 보호하는 난민학교가 있었으며 현재는 콩고, 르완다, 체첸 같은 지역에서 온 수많은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는 망명 센터가 있다. 이 지역 마을 공동체들은 '영웅적인 이타주의'라는 놀라운 전통과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 저자는 이 특별한 공동체의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기 위해 이 작은 농촌지역의 역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농부와 양 떼들로 가득한 이 마을은 해발 3000 피트 고도에 위치해 있으며 번잡한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지역이다. 1942 년 가을, 이곳에 다니엘 트로크메라는 한 남자가 이 마을 거친 땅 위에 난민 아동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도착했다. 그는 부모님에게 쓴 편지에 이 세상을 다시 재건하고 싶다는 소망을 비추며 스스로에게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고백했다. 이 마을 사람들 누구도 그런 다니엘 크로메의 뜻에 반기를 들지 않았고 마을 주민들 역시 그와 함께 낯선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저자는 또한 이 고원 마을에서 일어난 이타주의 역사를 통해 현재 망명 센터에서 난민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트로크메가 그의 가족에게 보낸 실제 편지들을 소개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목적 의식에 대해서 살펴본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인류학자인 저자의 시선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난민문제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에 대해 새로운 질문과 새로운 답을 제시할 수 있게 해주는 역사서이자 한편의 감동적인 에세이다.

<목차>

제 1 장: 답할 수 없는 것들

제 2 장: 경외의 날

제 3 장: 출애굽기 2

제 4 장: 로프에서 처음으로

제 5 장: 이 세상 모든 작은 귀뚜라미들

제 6 장: 손과 발

제 7 장: 사냥

제 8 장: 봄의 열매

(이하 생략, 총 15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매기 팩슨 (Maggie Paxson)은 인류 학자, 작가 및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전작으로는 『Solovyovo: The Story of Memory in a Russian Village』가 있으며 워싱턴 포스트에 에세이를 기고하고 있다.

제목 : WHAT DOESN'T KILL US MAKES US
가제 :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만든다
저자 : Mike Mariani
출판사: Crown
발행일: 2021년 가을
분량 : 프로포절 73 페이지
장르 : 심리



*** 역경이나 고난 앞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비극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책.**

우리 모두에겐 저마다 개인적인 비극으로 고통받았던 시기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재앙이 오늘 날 우리의 모습을 형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선 잘 모를 것이다. 자기계발 전문가들은 그 비극을 우리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활용하라고 조언할 것이고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우리의 정신에 놓아진 덫으로 해석할 것이다. 또는 아마도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 비극적 사건을 한 인간을 바보 혹은 영웅으로 만들어 낼 뿐 실제적 힘은 갖고 있지 않은 허상의 것으로 여길 것이다. 뉴요커 등 다양한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 마이크 마리아니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온 개인적 재앙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를 깨우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 지 이 책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이 책의 특별한 점은 저자 역시 불운한 개인사를 가지고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던 끝에 서서히 그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라는 점이다. 그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고 홀로 세상에 남겨진 존재나 마찬가지였다. 저자의 어머니는 암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 또한 어머니의 뒤를 따랐다. 그 후 저자 역시 어린 시절부터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렸고 성인이 되어서야 자신이 심각한 정신쇠약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기까지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바다 위를 허망하게 떠도는 난파선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치료를 시작한 후 그 병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른 셋에 영문학 석사 학위를 수료했고 지금은 뉴요커를 포함한 유명 매체에 글을 기고하는 프리랜서 칼럼니스트이자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비극에 맞서 더 큰 용기를 낸 사람들 혹은 영구적인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빠진 사람들 및 그 사이에서 여전히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그 중에는 교통사고로 어느 날 갑자기 하반신 불구 장애인이 되었지만 그 고통을 극복하고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 과정 학생이 된 발레리 피로의 이야기와 갱들 집단에서 성장해 강도 혐의로 독방에 수감되었다가 복수의 길을 선택하는 대신 버클리대학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공공정책 연구원이 된 대니 무리요의 놀라운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불행히도

결국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사연도 소개한다. 저자는 이러한 개인적인 실제 사례들과 고통을 극복하는 다양한 인간들의 군상에 대한 통찰력을 더해줄 기독교 및 불교 사상과 니체, 키에르 케고르, 윌리엄 제임스, 빅토르 프랑클 등 철학자들의 관점과 현장 연구를 바탕으로 한 학술 자료, 통계자료 또한 이 책에 실었다. 독자들에게 무조건적인 희망을 제시하기 보다는 역경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복잡한 진실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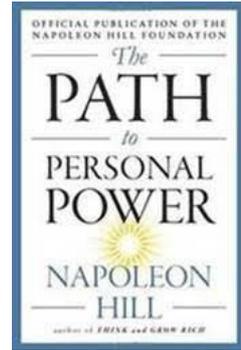
<목차>

- 제 1 장: 불굴의 용기
- 제 2 장: 감소
- 제 3 장: 악마
- 제 4 장: 취약성의 심리학
- 제 5 장: 답변
- 제 6 장: 헌신
- 제 7 장: 창조
- 제 8 장: 재창조
- 결론

<저자 소개>

마이클 마리아니 (Mike Mariani)는 더 뉴요커, 뉴욕타임즈, 베니티 페어, 가디언, GQ 등 다양한 유력매체에 글을 기고하는 칼럼니스트이자 프리랜서 언론인이다. 이 책은 그의 첫 책이다.

제목 : THE PATH TO PERSONAL POWER
가제 : 내 안에 숨겨진 힘을 찾아서
저자 : Napoleon Hill
출판사: Tarcherperigee
발행일: 2017년 7월 18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미국 자기계발서 및 동기부여 도서의 표준을 확립한 저자가 알려주는 성공의 지름길**

이 책의 저자 나폴레옹 힐은 1908년 밤 테일러 매거진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던 젊은 시절, 산업의 제왕 앤드류 카네기의 집에서 그와의 첫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만남에서 카네기는 나폴레옹에게 향후 20년간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공 비결을 묻는 인터뷰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내보는 게 어떨겠냐고 제안했다. 나폴레옹은 즉시 그 도전에 응했고, 그 후 긴 세월동안 진행했던 연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개인의 성취에 대한 첫 연구집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 결과물은 1928년 『Law of Success』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고 이후 1937년에는 『Think and Grow Rich』라는 제목으로 그 축약본이 출판되었다. 이 두 책은 의심할 여지없이 20세기 전후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자기계발서였다. 그가 사망하기 8년 전인 1962년, 나폴레옹은 그가 설립한 나폴레옹 힐 재단에서 여전히 자신의 철학을 세상에 알리는데 힘썼고 그의 책은 전세계에서 50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그 후 2011년에도 그가 남긴 『Outwitting the Devil』 원고를 포함한 그의 미발표작들이 연이어 출판되었다. 지금도 그의 재단에서는 미래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나폴레옹 힐의 원칙을 가르치고 있으며 재단 기금으로 장학금을 또한 수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1941년 윌리엄 플러머 제이콥스 박사의 끈질긴 요청으로 나폴레옹 힐이 진행했던 성공에 대한 강연들의 일부를 발췌해 엮은 책이다.

언론사인 제이콥 프레스의 소유주이자 프레스비테리언 대학의 총장이었던 제이콥 박사는 1년 전 수강했던 나폴레옹 힐의 강연을 듣고 완전히 매료되었고 1930년대 미국에 닥친 경제공황으로 비탄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의 강연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그 때 다시 경제적 지원을 주로 정부의 손길에만 과도하게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성공하는 법을 나폴레옹 힐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랐다. 나폴레옹은 제이콥스 박사의 제안을 수락했고 그가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머물면서 성공 비결을 담은 책을 썼다. 당시 나폴레옹은 카네기와 처음 만났던 순간 그를 관찰하며 느꼈던 첫 인상을 바탕으로 책의 제목을 '정신적 다이내마이트 (Mental Dynamite)'라고 붙였다. 그는 한 개인의 생각이 가진 힘을 정신적 다이내마이트와 같다는 그의 논지를 이 제목을 통해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이 책은 바로 정신적 다이내마이트에서 발췌한 내용과 나폴레옹이 직접 만나 인터뷰했던 카네기 및 다른 위대한 인물들과 토론하며 발견한 성공의 원리와 카네기의 원칙을 실제로 적용해 성공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일화를 엮은

것이다. 저자 나폴레옹은 이 책에서 그는 우리에게 이미 인생에서 원하는 부와 성공,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개인적인 역량'이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인 '명확한 목표 설정, 지휘자의 자세 갖추기, 한 발 더 나아가기'에 대해 설명한다. 자기 안에 있는 힘을 발견하기 위한 그의 원칙들을 따르다 보면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성공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책이다.

<목차>

서문

제1장. 명확한 목표 설정

제2장. 지휘자의 자세 갖추기

제3장. 한 발 더 나아가기

<저자 소개>

나폴레옹 힐 (Napoleon Hill)은 1883 년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태어났으며 1970 년부터 강사, 작가, 비즈니스 리더 컨설턴트로 오랜 경력을 쌓았다. 그의 저서 『Think and Grow Rich』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권이 팔렸으며 오늘날의 동기 부여 관련 저서의 표준을 확립한 최고의 베스트셀러이다.

제목 : THE UNEXPECTED JOY OF THE ORDINARY

가제 : 평범한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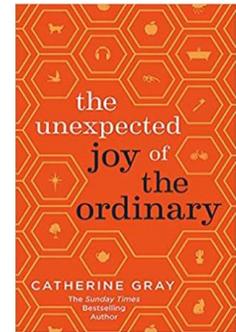
저자 : Catherine Gray

출판사: Aster

발행일: 2019년 12월 26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에세이



* "쾌활하고 날카로우면서도 설득력 있는 이야기" - 「더 텔레그래프」

날마다 최고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누구든 그 방법이 뭔지 알고 싶어할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캐서린 그레이는 특유의 유머와 깊은 통찰력으로 어우러진 그녀의 진중한 이 에세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 순간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 알려준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이란 뭔가 거창하고 특별한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당장 행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캐리비안 해안의 선베드에 앉아 휴가를 보내거나 목에는 황금색 휘황찬란한 목걸이를 걸치고 고급 세단 운전석에 앉아있거나 혹은 신비로운 마추픽추에서 일출을 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찰나의 화려한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중 그 누구도 '충분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단어인 '쾌락의 쳇바퀴 (hedonic treadmill)'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는 '한 개인의 경제적 기대치나 욕구는 소득 증가 수준에 비례하여 상승하나, 만족감이나 행복감의 순이익으로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경향'을 의미하는 말이다. 즉, 일정 수준에 이르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또 다른 행복을 찾길 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저자는 그 해결책은 바로 우리가 종종 너무 익숙해서 잊어버리고 마는 평범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평범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겠다고 결심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그러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갓 구운 크루아상, 따뜻한 물로 하는 느긋한 샤워, 요가 수업, 택배가 도착하는 순간 등이 우리의 일상을 작은 기쁨들로 채우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소확행의 기쁨은 결코 끊이는 법이 없으며 질릴 일이 없다는 것이다.

2013년 즈음만 해도 저자는 마음과 몸까지 집어삼킨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어두운 터널 속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그 우울증이라는 검은 개가 끊임없이 자신을 쫓아다니자 어둠에서 벗어나 다시 사람답게 살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새로운 사고 방식을 찾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 안에 있는 인정 욕구에 목말라 칭얼대는 아이 같은 자아를 버리고 평범한 것에서 행복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다. 이 책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기존의 생각을 뒤집어 엮는 신선한 담론을 만들어 내는 저자의 시리즈 중 세 번째 책이다. 저자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신경과학, 심리학적 지식을 토대로 인스타그램 스타들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만의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따뜻한 영감을 줄 책이다.

<목차>

섹션 1 :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살아남기

쾌락적의 쳇바퀴

만족도 vs. 최대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을 때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하기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26 가지

섹션 2 : 평범한 생활

이주하지 않은 삶에 대한 예찬

여분의 물건이 왜 여분의 '해야한다'가 되는 이유

집에서 인스타그램 하지 않기

(이하 생략, 총 8개의 섹션으로 구성)

<전 시리즈>

1. THE UNEXPECTED JOY OF BEING SOBER / 출간일: 2017년 12월 8일, 분량: 272 페이지

즐거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언제나 술을 권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음주 강박에 대해서 살펴 보고 신경과학자와 심리학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왜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는지, 술과 우리의 인체, 뇌의 관계 및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책이다.

2. THE UNEXPECTED JOY OF BEING SINGLE / 출간일: 2018년 12월 27일, 분량: 272 페이지

영화에서도 대중가요에서도 연애를 강요하는 이 사회에서 직접 싱글로서 사는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1년 동안 연애를 쉬면서 싱글의 삶을 은근히 배척하는 문화 풍토에 대해서 분석하고 결혼 생활이 정말 싱글의 삶보다 행복한 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책이다.

<저자 소개>

캐서린 그레이 (Catherine Gray)는 수상 경력이 있는 작가이자 가디언지, 스타일리스트, 더 텔레그래프, 그라지아, BBC 어스등에서 편집자로 일한 경력이 있다. 그녀의 첫 책 『The Unexpected Joy of Being Sober』는 선데이 타임즈 10대 베스트셀러 중 한 권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Unexpected Joy of Being Single』 역시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